



소수의 자발적인 자살이 아닌 살인일 것이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은유나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속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만약 국가가 "우리"도, "가족"이 함께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숙 모임이나 컨트리클럽 또한 아니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국가는 주어진 영토 안에서 힘과 폭력의 독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회조직이다. 특히, 국가는 자발적인 기부 혹은 제공한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수익이 아닌 강제에 의해서 수입을 얻는 사회 내 유일한 조직이다. 다른 개인이나 기관들은 재화와 서비스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한 것들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국가는 강제력을 이용하여, 즉 감옥과 무력의 사용과 위협으로 수입을 얻는다. 수입을 얻기 위해 무력과 폭력을 사용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개별 주체들의 다른 행동들까지 규제하고 지시한다. 사람들은 위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단순한 관찰이 충분한 증거가 되리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활동에 있어서 근거 없는 믿음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what-state-not>